



“푸드테크 61조 ‘황금시장’... 선점 나서야”

경기연구원, 道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담조직·안테나숍 운영...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급선무”

대체식품, 외식서비스 자동화 등 식품(Food)과 첨단기술(Technology)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국내 시장 규모가 6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푸드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 등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푸드테크는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유형의 산업을 의미한다.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등 먹거리 시장을 배후로 성장한다는 점에서 식품산업과 유사하지만 식품 전 과정에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첨단 기술을 융복합해 새로운 유형의 식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서비스하는 공정을 말한다.

주요 범위로는 대체식품(식물·곤충·배양 등 방식)을 통해 육류와 유사한 제품 생산, 간편식, 소비자 맞춤형 식품의 생산 및 소비, 식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는 로봇 등이 포함된다.

식품과 첨단기술을 융복합한 푸드테크 산업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2017~2020년 푸드테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세계 38%, 우리나라는 31%로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5542억 달러, 국내는 약 61조 원(식품산업 시장규모 570조 원의 10.7%)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 식품산업(시장)에서 경기도의 비중(25% 내외), 정보통신산업 기반 및 강남에서 판교로 연결되는 스타트업 벨트, 국내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R&D) 및 스타트업 인력 유치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푸드테크산업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스타트업 육성 위주의 푸드테크산업 발전 전략을 수립해 국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푸드테크’를 비전으로 하는 푸



지난해 11월 서울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코리아 푸드테크 산업전.

연합뉴스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경기도 푸드테크 협의회(가칭) 구축 및 전담조직 운영 △푸드테크 창업 교육 및 관련 인재 양성 추진 △경기도 푸드테크 창업지원센터 구축 △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식품기업을 푸드테크 기업

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푸드테크 테스트 베드형 안테나숍 운영 등이 있다.

이러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민간 투자유치 지원 △푸드테크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펀드 조성 등이 필요하고, 시장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G마크와 연계한 푸드테크 인증제 도입 △푸드테크 기업의 국내 외 시장개척 지원 등이 따라야 하고, 농업과

연계 강화를 위해 △푸드테크 원료 이용이 가능한 중자 개발 △푸드테크 기업과 농가간의 계약재배 확대 등을 각각 제안했다.

이수행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가 국내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스타트업 육성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 푸드테크 스타트업 캠퍼스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인천 부평 ‘캠프마켓’ 전체 부지 시민 품으로

84년 만에 잔여구역 23만㎡ 반환 합의... 유정복 시장 “공원 등 조성 명소 만들것”

인천광역시 1939년 일제강점기 조병창부터 광복 이후 주한미군기지로 사용된 부평미군기지(이하 캠프마켓)가 온전히 인천시민의 곁으로 돌아와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20일 오후 2시20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마켓 D구역(23만㎡)이 마지막으로 반환(주한미군→국방부)됐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캠프마켓 전체 부지는 44만㎡으로 모두 인천시민의 품으로 돌아와 이제 본격적 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캠프마켓 D구역의 반환을 발표했다. 캠프마켓은 2002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2019년 12월 A, B구역(21만㎡)이 부분 반환된 이후 4년 만에 잔여 부지인 D구역의 반환이 완전히 이양된 것이라 향후 인천발전에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다.

유 시장은 “84년이란 짧지 않은 세월이 흐르고서야 드디어 인천의 품으로 완전히 돌아왔다”라며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해 캠프마켓 부지 반환을 진심으로 환영한



유정복 인천광역시 시장이 20일 부평 캠프마켓 반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인천시

다”고 말했다. 이어 “캠프마켓 사업은 완벽한 오염정화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교통, 보행, 녹지축을 확충 연계해 시민과 공원을 강력히 연결하겠다. 캠프마켓만의 가치를 담은 복합적 공간 활용을 통해 인천의 명소로 초입류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반환이 지연된 부분을 극

복하고 캠프마켓을 시민의 뜻이 담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선제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원 조성 방향을 가시화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리기 위해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역사 가치 보존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시설물 조사 등도 진행 중이다.

김영훈 기자 ynkim@skyedaily.com



힐스테이트 더 윤정 조감도.

현대건설

윤정신도시 ‘힐스테이트 더 윤정’ 분양

지상 49층 13개 동 총 3413가구... ‘원스톱 라이프’ 실현

현대건설은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7-2, 3번지 일원(P1, P2블록)에 ‘힐스테이트 더 윤정’ 아파트를 분양 중이다. ‘힐스테이트 더 윤정’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 13개 동으로 아파트 744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총 341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아파트는 전용 면적 84㎡ 타입 위주와 164㎡ 펜트하우스로 구성된다. 타입별로는 △84㎡ A 244가구 △84㎡B 244가구 △84㎡C 250세대 △164㎡P 67가구 등이다. 국민 평형으로 인기 많은 전용 84㎡와 희소성이 높은 펜트하우스로 설계된다. 힐스테이트 더 윤정 내에는 국내 최초로 ‘스타필드 빌리지’가 들어선다.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

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새롭게 선보이는 커뮤니티형 소풍공간이다. 지상 1층~4층 규모로 스운 가족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아카데미와 엔터테인먼트 △교육과 놀이가 결합된 키즈 콘텐츠 등 주민의 일상생활 서포트 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을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다.

또 단지 내 고품격 스트리트몰도 설치할 계획으로 세계적인 건축기업 ‘베노이’가 설계할 예정이다. 국내 주요 멀티플렉스인 CGV도 입점한다.

‘힐스테이트 더 윤정’은 윤정신도시 핵심입지에 조성돼 교통과 자연, 상업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입지를 자랑한다. 김정은 기자 jkim@skyedaily.com

용인산업진흥원 ‘용인형 강소기업’ 육성 올인

유망기업 발굴, 성장단계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성장동력 마련

용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올해 중소기업 개발생산물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 용인형 강소기업 육성에 나섰다.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20억 원 이상, 자체 개발역량 보유, 근로자 수 7인 이상 등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창안개발·제품제작·판로마케팅 등 전주기적 지원을 하는 신규사업이다. 올해 첫 시행으로 관심을 모았다.

진흥원은 관내 유망 강소기업 3개사를 최종 선정해 시제품 제작·인증취득·시험

분석·마케팅 등 사업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담 컨설턴트를 매칭해 판로개척·시장조사·기술개발 등 각 기업별 필요한 분야에 대해 컨설팅도 병행 지원하고 있다.

초위스컴퍼니는 2012년에 설립한 피부, 두피 진단기 전문 업체로 설립 초기부터 로열알, 크리스찬 디올, 피에르파브르 등 글로벌 브랜드와 협력해오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준비된 글로벌 기업이다.

휴마스터는 2022년 아기유니콘 기업 및 2023년 정부조달우수제품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 유일 제습기술로 특화된 전문기업이다. 기존의 ‘휴미콘’ ‘휴제로’에 이어 소비재라인으로 생활용품 ‘휴시트’를 올해 첫 출시하면서 B2C(기업간 거래) 상대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제품을 홍보하고자 이번 사업을 통해 △홍보동영상 제작 △분류 패키지 △제품 소개용 브로셔 제작 △시험분석 등을 지원받았다.

바이로봇은 국내 비행로봇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국내에서 직접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몇 안되는 독보적인 업체이다. 유저의 사용패턴 학습이 가능한 인공지능(AI) 드론 조종기



용인산업진흥원이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상담 활동 등 관내 중소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베풀고 있다.

용인산업진흥원

를 개발하였으며 시제품 제작과 함께 친환경 패키지를 제작해 ESG 경영을 실천했다.

용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지원한 관내 중소기업들의 놀라운 성과를 보며 강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강재규 기자 jkkang@skyedaily.com

생활쓰레기 매일수거 시행 광진구 새해부터 주 6일로

서울시 광진구가 2024년 1월1일부터 생활 쓰레기 매일 수거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주 3일 격일 수거하는 방식을 새해부터 주 6일 매일 수거제로 바꾼다. 민선 8기 공약인 쓰레기 수거 체계의 혁신적 개선의지를 적극 반영했다.

그동안 동별로 배출 요일이 달라 헷갈렸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15개 모든동이 ‘일·월·화·수·목·금·일’ 주 6일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 강남자민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 등 공공처리 시설에 쓰레기 반입이 정지되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제외된다.

직영과 대영으로 이원화되었던 쓰레기 수거 체계도 일원화한다. 모든 생활 쓰레기(일반·음식물·재활용)를 대영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김경호 구청장은 “매일 수거제 시행으로 그동안 불편했던 생활 쓰레기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쓰레기를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주민 여러분도 올바른 쓰레기 배출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영호 기자 cyh2@skyedaily.com



인천광역시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시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인천시 ‘동인천 아트큐브’ 운영

인천광역시가 원도심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18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네이밍 공모전을 통해 ‘동인천 아트큐브’로 이름 붙여진 이곳은 동인천역 북광장 부지(172.5㎡)에 전시와 사무실 공간(4개), 오픈형 무대(36㎡)로 구성돼 있다.

야외무대는 기획공연, 동아리 발표회, 버스킹 등 문화공연이 항상 펼쳐지는 무대로 운영될 예정이다.

내부공간 일부 등은 지역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예술활동 및 창작·연습공간으로 제공되며 내이비로 대관 신청하면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22일 열리는 개소식에는 지역 예술인의 축하 공연(리듬엔브라스, 리듬몬스터, 오리엔탈 소커스)과 기획전시 사진전(방영문 작가)도 함께 진행된다.

김종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024년을 인천시민이 일상 공간 속에서 문화예술을 더 가깝게 향유 할 수 있도록 예술을 일상화 하는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인천 아트큐브’에서 다채로운 문화체험과 예술적 만족기쁨을 시민들이 많이 얻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ynkim@skyedaily.com